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어 한우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1월호

포커스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
스마트팜 한우포함

기획

한우 소비, '요우커' 대상 신시장 열었다

한우자조금소식

한우고기 홍콩 수출길 물꼬 텄다
축산 선진국 보고 배우는 해외연수 진행돼

목장탐방

강원도 춘천 천지농장

목 차CONTENTS

2016년 1월호

10

11

18

신년사

03 소비자 신뢰 높이고 농장 경영 안정화 돼야
김충완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의장

04 명품 한우가 세계화 대열에 진입하는 한 해 되기를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05 좋을 때 일수록 어려웠던 때를 돌이켜보는 지혜를 가집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포커스

06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 스마트팜 한우포함

기획

08 한우 소비, '요우커' 대상 신시장 열었다

한우자조금 소식

10 한우고기 홍콩 수출길 물꼬 텄다
11 "한우고기로 만든 우리나라 요리 맛 어때요?"
12 "한우산업 발전에 여성한우인이 빠질 수 없죠" 외
13 너와 나의 한우, 'I.한우.U' 이벤트 진행돼 외
14 **조사연구**_국내 초중고생 급식 식단에서 한우고기 늘려야
16 **방송PPL**_가족 간 사랑으로 나누는 한우의 맛

정보마당

17 **한우협회소식**_한우업계 안정 위해 '육류 안정제'도입 주장 외
18 **농장탐방**_강원도 춘천 천지농장
20 **한우시황**_1월 한우 관측

독자마당

22 **설문조사**_한우농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소비자 신뢰 높이고 농장 경영 안정화 돼야

김충완
한우지조금대의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우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 한해도 저물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서도 꿋꿋하게 한우산업을 지켜주신 한우인들이 모처럼만의 한우가격 상승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위안을 받았던 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가격이 떨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자기 농장규모에 맞는 농장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들려온 한우고기 홍콩수출 소식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희소식입니다.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이지만, 언젠가 전 세계에 한우가 수출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희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은 그동안 한우인이 십시일반 모아서 납부해 주신 자조금의 역할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조금은 작년 한해도 한우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며, TV방송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우유통바이어 전국대회',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한우수출지원사업' 등 유통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도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우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우인 여러분!
올 한해에도 모든 한우인 여러분의 농장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품 한우가 세계화 대열에 진입하는 한 해 되기를

이근수
한우지조금관리위원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한우농가와 축산인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작년한해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농협 등 대형마트와 할인판매 진행, 한우직거래장터, 한우캠핑페스티벌, 한우요리대회,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했으며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했던 한우알뜰판매장 개설 사업도 완성되어 화성시에 한우알뜰판매장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특히 한우의 날(11월 1일)에는 기존의 한우농가만의 축제라는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할인판매 및 나눔 행사를 진행한 결과 한우소비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에도 한우의 날이 농가만의 행사가 아닌 또 하나의 명절로써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가 한우 먹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연히 한우에 '명품'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한우는 보양식을 넘어 약으로 귀하게 대접받았으며 수입산 쇠고기보다 감칠맛을 내는 올레인산 성분이 더 많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아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우의 맛은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에게까지 입소문이 퍼지면서 돼지고기를 선호하던 중국인들의 입맛을 한우로 바뀌게 만들었을 정도로 한국의 대표 소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우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축산 강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과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감소,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여전히 한우 농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농가분들의 노력 덕분에 최근 한우를 홍콩에 수출하게 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희망찬 추세에 힘입어 새해에는 한우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우를 맛볼 수 있도록 한우 소비시장을 해외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내 세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국내 농축산업 중 최고의 산업으로 한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한우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다시 한 번 염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을 때일수록 어려웠던 때를 돌이켜보는 지혜를 가집시다.

산업안정을 통해 민족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10만 한우농가에게는 희망으로 활기찬 한 해가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수년간 소값 하락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나 협회 ·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도 합니다. 우선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국내산 농축산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고 무허가 축사양성화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덜어야 할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등급제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세계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앞으로 다가올 TPP 등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도 안심해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슬기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산업의 첫째 조건인 가격안정화입니다. 수년간 가격 하락의 고충에서 뼈저리게 느꼈듯이 생산단계에서의 생산조절과 개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미경산우 비육과 그에 따른 이력제 활용을 통한 수급예측이 필수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한우산업이 땅을 딛고 일어서는 1차 산업으로써 생산농가수가 절대 필요한 것이며 농가수 유지는 산업의 질을 높이는 근본이 되므로 절대 대기업의 진출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의 역량을 총결집 할 것입니다. 셋째는 농가의 조직화입니다. 농가를 우선시하는, 농가가 주인인 자생적 생산자단체들의 결속으로 우리의 산업을 민족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한우협회는 우선 전농가를 회원화하여 시군지부가 지역화에 걸 맞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여 한우산업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나아가 생산농가(협회)를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이 한우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민족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넷째 한우생산 전후방의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사료가격·유통질서·부산물가격체계가 농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산업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인 한우를 국민과 함께 민족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갈한 생산환경을 만들고 명품한우에 걸맞는 한우인의 품격을 갖추어내고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농가마다의 노력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전국한우협회가 혼신의 힘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한우농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 스마트팜 한우포함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사업에 150억 원 지원

2016년부터는 농축산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의 대출금리를 2.5%에서 2%로 0.5% 인하한다. 또한 한 · 뉴질랜드 FTA피해 보전을 위해 '한우 우수 수정란 생산기반 구축',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ICT 융복합을 위한 '스마크팜' 사업에도 한우를 포함해 자동포유기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한우산업 정책 내용을 살펴보자.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2%로 낮아진다. 기존 2.5%에서 2.0%로 금리가 낮아지는 정책자금은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 사료산업종합자금, 종축시설현대화, 도축가공업체지원,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금 등이다. 또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등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2.7%에서 2.0%로 금리가 떨어진다.

◎ **한우 및 낙농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한 · 뉴질랜드 FTA피해 보전을 위해 한우 및 낙농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존 847억 원에서 내년에는 1,232억 원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예산은 한우 · 젖소 우수 수정란 생산기반 구축(25억 원),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150억 원), 농업기술 협력을 위한 한 · 뉴 FTA 협력사업(16억 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스마트팜 사업에 한우 포함** :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2016년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한우, 젖소 등 대 가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자동포유기 등 스마트 축사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국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기준

가격은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다.

또한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 **가축사육업 허가 · 등록 확대 :** 소 · 돼지 · 닭 · 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또한 면적 10~15㎡인 닭 · 오리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 **한 · 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 · 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의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시행 :** 내년 4월부터 농산업 분야에 역량있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창업안정자금으로 최대 2년간 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 300명을 선발하기 위해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진행된다.

◎ **농식품벤처창업을 위한 기술 · 자금 · 판로 · 보육 원스톱 지원 :** 내년 상반기부터 농식품 벤처 · 창업을 위한 기술 · 자금 · 판로 · 보육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20%)까지 기술가치평가가 지원되고,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도 최대 1,000만 원(자부담 20%)까지 받을 수 있다. 시제품 판매관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등 지원도 병행된다.

한우 소비, '요우커' 대상 신시장 열었다

13억 대륙 중국 수출로 이어질 초석(礎石) 마련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쇠고기 강국과 FTA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한우와 수입 쇠고기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맞설 대안으로 국내를 넘어선 '한우의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소비'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 새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우를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성됐으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한우판매점의 매출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에서는 관광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를 대상으로 한우 프로모션을 실시해 급증하는 중국의 쇠고기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 찾는 중국인 관광객 해마다 늘어

2015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5월 발생한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550만 명(1~11월)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의 46.5%에 이르는 수치로, 2012년 3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한류열풍에 맞춰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은 어느새 명동과 종로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의 매출을 책임지는 수준에 다다랐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한우 홍보 행사가 이어진다면 한우를 맛본 중국인 관광객이 고향에 돌아가 재구매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을 염두에 둬을 때, 구이문화는 물론 불고기 등의 한국식 한우 요리를 중국에 전파할 일대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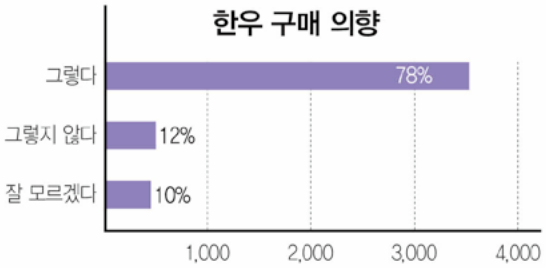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한우 소비의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한우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4년간 이어진 프로모션은 명동·종로 등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에서 한우의 맛과 품질을 홍보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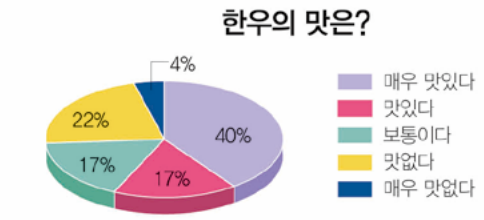
명동·종로 등 주요 관광지에서 프로모션 이어가

특히 2015년 '니하오-한우 한류 프로모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 15개 한우 전문점을 선정, 매장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격할인, 음식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국내 호텔 127곳 등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장소에 한우와 한우 음식점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리플릿에는

서울 지도, 주요 관광지 안내, 지하철 노선도 등 여행객에게 유용한 정보와 한우 음식점 소개를 함께 담아 자연스럽게 한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인들의 한우에 대한 의향을 묻기 위해 총 4,672명의 중국인 관광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우의 맛에 대해 '맛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맛이 없다'는 답변은 1%에 불과해 한우 맛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더불어 '한우 재구매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8%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중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구이(40%)' 메뉴로 나타났다. 이어서 불고기가 22%를 차지했고, 갈비탕과 양념갈비가 각각 17%, 육회 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성별은 여성이 2,712명으로 58%를 차지했으며, 방문 연령대는 30대가 2,005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한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먹어본 사람은 85%에 달해 한류열풍이 한우 홍보에도 이어진다는 점이 증명됐다.

한우전문점 '한우촌', 외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40%

남대문 회현역 근방에 위치한 한우 전문점 '한우촌'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중국어가 들려와 이곳이 중국 음식점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곤 한다.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우촌은 2013년 이후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었다.

한우촌의 김애심 매니저는 최근 관광객 추세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많이 찾아온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업가, 고위직 종사자 등 부유층이 많아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의

40~50%에 이른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찾아와 한우를 소비하는 것도 수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는 김 매니저는 "자조금에서 한우 프로모션을 진행해 새로운 중국인 손님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우를 세계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우고기 홍콩 수출길 물꼬 텄다

태우·대우·축림, 홍콩 수입업체와 한우고기 수출 계약

한우에 대한 홍콩 검역당국의 수입 허용절차가 지난 11월 공식적으로 완료되면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중단됐던 한우고기 수출이 본격화됐다.

국내 축산물유통 업체인 축림이 풀룸그룹과 함께 지난 12월 23일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태우그린푸드도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홍콩의 수입업체 엘리트그룹과 수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 등 업계 관계자 60여 명은 한우고기의 성공적인 홍콩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홍콩 현지에서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펼치는 한편 유통 업체를 방문해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24일에는 태우그린푸드가 시티슈퍼에서 한우고기를 시판한 결과, 당일날 전량 판매되는 쾌거를 거두면서 한우가 홍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현재 일본산 와규가 '고품질', '높은 가격'이라는 전략을 앞세워 kg당 20만~3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가 홍콩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홍콩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인회장과 홍콩의 수입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수출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한우고기의 수출 계약 체결

을 위한 축림과 홍콩 만안유한회사 간 면담도 진행됐다. 한우고기 홍콩수출 계약식을 마친 오후에는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축산물 수입업체와 요식업 관계자 및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우갈라 디너쇼'를 진행했다. 한우 갈라 디너쇼에 앞서 한우 홍보영상이 상영되었으며 호텔 조리사가 한우를 이용하여 홍콩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핫팟, 소고기볶음, 스테이크 등의 요리를 선보여 한우의 맛을 적극 알렸다.

이번 한우 홍콩수출은 그동안 소규모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정식 검역절차를 거쳐 성사됐다는 점에서 '홍콩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계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한우 수출이 이뤄질 경우, 많은 업체들이 일시에 가세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고기로 만든 우리나라 요리 맛 어때요?"

한우자조금, '2015 한우로 다문화 요리 뽐내기' 대회 개최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한우고기는 자국 요리를 자랑하는데 멋진 식재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12월 12일 안산시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한호전 미래관 5층에서 다문화 이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2015 한우로 다문화 요리 뽐내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요리 대회는 'LOVE IN WORLD! LOVE IN HANWOO! 고향의 맛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다문화 이주민들을 초청해 한우로 자국의 고향음식을 만들어봄으로써 서로 먹거리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요리 대회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을 대표해 20개 팀의 다문화 가정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대회에서 지급된 한우부위를 이용해 제한시간 60분 내에 모국의 특색을 살리는 고향음식을 만들었다. 특히 베트남 쌀국수를 비롯해 한우고기를 넣고 갈아 만든 초밥까지 각국 고유의 식재료로 식감을 살린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요리 대회 결과 누엔티투하 씨(베트남)가 쌀국수 요리인 '한우 퍼보'를 선보여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이나은 씨(캄보디아)의 '한우 록락삿코(불고기)', 미치자와 요코 씨의 '유자향 한우 초밥'이 각각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장동화 씨의 '한우 완자탕', 리엔티난 씨의 '한우 반미보코', 아나벨레 씨가 요리한 '한우 카레 카레'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누엔티투하 씨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1명)가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최우수상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2명), 우수상에는 2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3명), 장려상에는 15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14명)가 제공됐다.

누엔티투하 씨는 "예상치 않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며 "상품으로 받은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해보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우산업 발전에 여성한우인이 빠질 수 없죠"

한우자조금, 2015 여성한우아카데미 진행

여성한우인의 농장경영과 한우사육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마련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 11월 여성한우인들을 대상으로 '2015 여성한우아카데미'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여성한우아카데미는 지난 11월 17~18일 이틀간 강원도 리카이샌드파인리조트, 11월 26~27일 양일간은 전남 보성다비치콘도에서 각각 진행됐다. 강원지역 아카데미에서는 '한우자조금의 역할'과 농협대학교 정정현 교수가 '농업·농촌·농협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 등을 진행했다.

전남지역 아카데미에서는 '최신 한우사양관리 기법', '한우 위생 및 질병관리' 강의 등 한우 사육기술을 위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여성한우인들은 "실제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양관리 기술을 배우게 돼 한우사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산 선진국 보고 배우는 해외연수 진행돼

호주와 뉴질랜드 농장 및 대형 쇠고기 판매장 견학

선진축산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는 농가 해외연수가 높은 지원 열기만큼 알찬연수로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축산 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지난 11월~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호주와 뉴질랜드에 방문하는 '2015년 한우농가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총 86명의 한우농가가 참석했으며 6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수농가들은 먼저 뉴질랜드 로토루아에 가서 2박 3일간 선진농장을 돌아보고 대형 쇠고기 매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어 호주로 이동해 시드니에 있는 소 사육 농장과 정육점 등을 견학했다.

너와 나의 한우, '1.한우.U' 이벤트 진행돼

영화 '대호' 보며 한우 햄버거 맛보니 '꿀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우114' 홈페이지에서 연말연시 감사 이벤트 '1.한우.U'를 진행했다.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한우와 함께 영화보자',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한우 요리'로 구성됐다.

먼저 영화 이벤트는 한우114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연'을 모집한 뒤 150명을 선정해 영화 '대호' 티켓을 2매씩 선물했다. 사연이 선정된 당첨자들은 지난 12월 19일 충무로 대한극장에 방문해 포토존에서 한우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행운권에 응모한 뒤 상영관으로 입장했다. 자조금에서는 모든 당첨자에게 한우 햄버거, 음료, 한우 육포, 한우 수첩 등이 들어있는 '한우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선물했다. 상영관에서 한우 홍보영상, 영화 '대호'와 함께 관람하고 한우 OX 퀴즈,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5명을 선정, 한우선물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한우는 어떤 모습일까?

한우자조금, '제7회 한우문화공모전'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 12월 19일 대한극장에서 '제7회 한우문화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근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한우(고기)가 생각난다'라는 주제로 광고, 사진, UCC 등 3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한 결과 총 291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1·2차 심사결과, 암소상 6팀, 송아지상 15팀, 입선 25팀을 선정했다. 각 수상자에게는 암소상 100만 원, 송아지상 50만 원의 시상금이 전달됐으며, 입선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상품으로 증정했다.

국내 초중고생 급식 식단에서 한우고기 늘려야

한우자조금, '전국 학교 한우고기 급식실태 조사연구'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지난해 급식을 통해 섭취한 한우고기는 약 1kg으로, 이는 국민 1인당 쇠고기 섭취량(2013년 기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 1인당 1.1kg, 평균 쇠고기 섭취량의 1/10배에 불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한 '전국 학교 한우고기 급식실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초·중·고 급식에서 한우고기 이용량은 6,627톤이며, 학생 1인당 한우고기 연간 섭취량은 1.1kg으로 학교급식에서 한우고기 공급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학교급식에 이용한 축산물은 6만6,108톤으로 이 가운데 한우는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축산물은 전년대비 286톤, 약 4.5%가 증가됐으나, 한우고기의 경우 전년대비 368톤 늘어, 3.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의 경우 이용 학교 수와 이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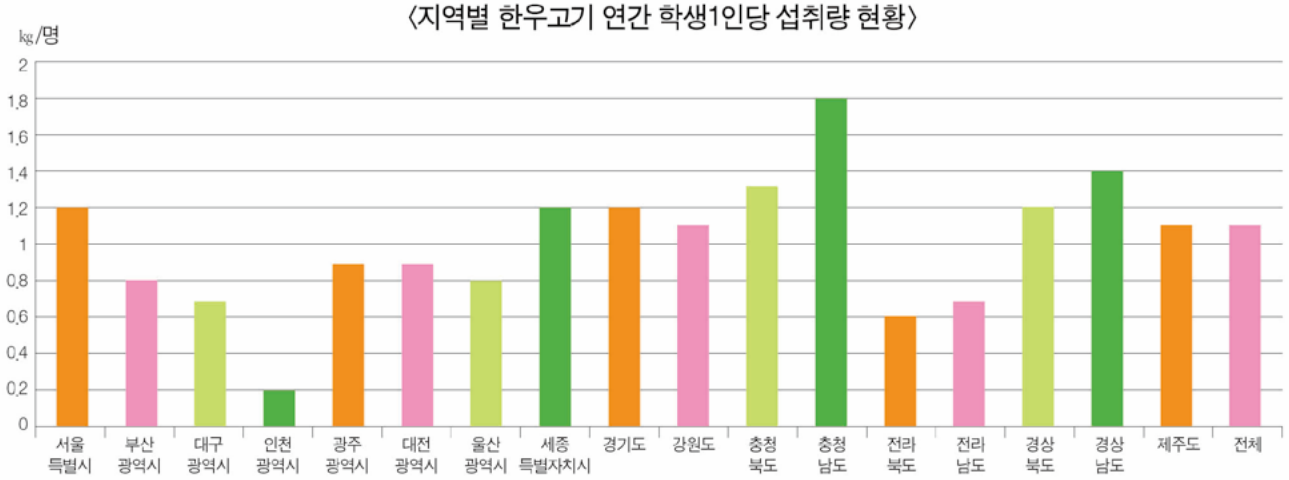
또한 전체 쇠고기 이용량을 전년과 비교해 조사한 결과 2014년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쇠고기 이용량은 7,691톤으로 전년대비 286톤, 2012년 대비

1,450톤 늘었으며 초등학교는 142톤, 중학교 11톤, 고등학교는 124톤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에서 쇠고기 이용률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학교는 20.8%, 고등학교는 27.7% 가량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학교에서 쇠고기 이용량 가장 많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쇠고기 이용 시 한우고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이용량이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주도의 95톤보다도 더 낮은 63톤에 불과해 한우고기를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한우고기 연간 학생1인당 섭취량 현황〉



경기도는 쇠고기 이용량이 2,007톤이었고 서울시는 1,722톤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은 만큼 쇠고기 소비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쇠고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신설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0톤이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0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시·도별 학교급식 쇠고기 이용량이 대구, 대전, 경기, 경북,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증가했으며, 이는 인구 수, 학생 수 및 학교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많이 이용되는 부위는 설도 우둔 사태 순

학교급식에서 이용되는 주요 부위는 저지방 부위(설도, 우둔, 사태, 앞다리 등)와 국거리부위(양지)로 조사됐다. 부위별 이용량을 살펴보면 양지가 1,79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도 1,378톤, 우둔 1,184톤, 사태 727톤, 앞다리 672톤, 갈비 628톤, 목심 379톤 순이었다.

또 전년대비 부위별로 보면 설도의 경우 116톤, 목심 39톤, 사태와 앞다리 32톤으로 저지방 부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용도별로는 국거리 부위에 양지, 불고기 부위에 설도, 우둔, 사태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학교급식에서 저지방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학교급식비에 쇠고기 지출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저비용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위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양지, 설도, 우둔, 갈비, 사태, 앞다리 순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양지, 설도, 우둔, 앞다리, 사태, 갈비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갈비 부위를 초등학교에서 네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상당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문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가족 간 사랑으로 나누는 한우의 맛

인기 드라마에 등장한 '한우 먹고 힘내세요' 응원

각종 드라마에 소개된 '한우와 가족'

11월 29일 방영된 MBC 주말드라마 '엄마'에서는 엄회장(박영규 분)이 박대룡(나종찬 분)에게 한우고기를 사주는 장면이 방영됐다. 화이팅이 필요한 순간에 한우 고기로 격려와 응원을 하는 한국의 한우소비 문화를 반영한 것은 물론, 우리한우판매점 마크를 지속해서 화면에 등장시켜 신뢰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화려한 유혹', '돌아온 황금복', '내일도 승리' 등 다양한 드라미에 한우세트를 선물하는 장면, 온 가족이 한우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 등을 담아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는 한우 이미지를 알려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MBC월화드라마 '화려한 유혹'
(가족과 한우 구이 파티 11월 30일)

SBS 생활경제
(제18회 한우능력평가대회 12월 2일)

SBS 해피투데이
(외국인 관광객 한우요리 배우기
12월 4일)

SBS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한우선물세트 선물 12월 10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다문화 가족 한우요리 열전
12월 14일)

SBS 불타는 청춘
(크리스마스 한우 바비큐파티
12월 22일)

SBS 좋은아침
(한우 스테이크 요리 12월 22일)

MBC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한우떡갈비 만들기 12월 23일)

한우업계 안정 위해 '육류 안정제' 도입 주장

한육우 수급 대책 마련 위한 연찬회 열려

고공 행진중인 한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육류 안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는 지난 17일 더 화이트베일에서 '2015년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연찬회'를 갖고 향후 쇠고기 수급전망에 따른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이형우 박사는 최근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한 것은 2012년 ~ 2013년 시행된 '암소감축사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며, 2017년까지 높은 가격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로 인한 쇠고기 수입량 증가는 김영란법 제정과 함께 한우 산업의 불확실성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박종수 회장은 "몇 해 전만 해도 한우 사육두수가 많아서 수급조절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왔다"며 도축 두수 감소로 인해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 농가 또한 한우 가격의 고공 행진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우 산업의 안정을 위해 외국처럼 '육류 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친환경축산 실천 현장견학 실시

국민수농장·고산미소 방문해 선진 사례 배워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지난 12월 15일 '2015년도 친환경축산 실천 현장 견학교육'을 전북 완주군 국민수농장과 완주 고산미소에서 각각 실시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우농가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자가 TMR 사료제조농기를 갖추는 등 생산비를 절감해 연간 2억5천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민수농장을 견학하고 이어 연간 방문객이 25만명, 연 81억 원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우정육식당 '고산미소'에 방문했다.

“자가 생산한 조사료로 수태율 높이고 생산비도 절감”

강원도 춘천 천지농장

30년 넘게 천지농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번식우의 공이 크다. 천지농장(강원도 춘천 소재) 박영철 대표는 그동안 주로 암소 개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는 한우 70여 두를 일괄사육하고 있다. 천지농장이 위치한 강원도 지역의 경우 경지면적이 부족해서 조사료 수급이 쉽지 않지만, 박 대표는 직접 재배한 조사료를 급이함으로써 번식우의 수태율을 높였고 약 30%가량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2년 전부터는 차남 민용 씨가 적극 가세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 박 대표 부자를 만나 천지농장의 농장운영 노하우를 들어봤다.

우량 암송아지 확보 위해 번식우 7~8산까지 유지

천지농장은 번식우 평균 산차수가 5~6산으로 일반 농가보다 높은데다 7~8산에 이르는 암소들도 있다. 천지농장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연간 30마리. 3산을 넘기지 않는 농가들도 적지 않지만 박 대표는 “암소의 산차수가 높더라도 우량 암송아지가 생산될 경우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암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태만큼은 신중을 기한다”고 말한다.

또한 천지농장은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수송아지를 비육해 거세우로 출하한 결과, 높은 성적을 받기도 했다. 그 중 일부는 도체중이 455kg으로 전국 평균보다 30kg 가량 높았고, 등지방두께도 6mm

가량 두꺼운 19㎜, 등심단면적의 경우 17㎠ 이상 더 나오기도 했다. 박 대표는 "등급이 좋게 나와서 출하 성적은 만족스럽지만, 도체중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 증체에 중점을 두고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량 종모우의 정액으로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암소의 체중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호맥과 옥수수 사일리지로 연간 사료비 30% 절감

박 대표는 주변의 농가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강원도는 산악지대이다 보니 경지면적이 부족해 조사료를 자기생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천지농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33,057.8512㎡(1만 평) 규모의 농지를 확보해 호맥과 옥수수를 이모작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조사료는 연간 30% 가량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안겨줬다.

직접 재배한 조사료는 생산비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천지농장의 소들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줬다. 박영철 대표는 송아지가 육성기에 접어들면 위가 원활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농후사료보다는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한다고 한다. 옥수수 사일리지의 경우 암소와 비육우의 위 발달을 좋게 해서 사료양이 늘어나더라도 소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다, 소화 효율을 높여 증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든든한 후계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천지농장

한편, 박영철 대표가 30여 년간 일궈온 천지농장은 3년 전 차남인 민용 씨가 합류하면서 든든한 성장원동력을 얻게 됐다. 박 대표는 민용 씨가 '이제 겨우 우사

▲ 후계자 박민용 씨는 최신 한우사육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착실하게 배워나갔고 현재는 '미경산 한우 비육'이라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 천지농장은 번식우 평균 산차수가 5~6산으로 일반 농가보다 높은 데다 7~8산에 이르는 암소들도 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소를 보는 단계'에 와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민용 씨는 최신 한우사육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착실하게 배워나갔고 현재는 '미경산 한우 비육'이라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요즘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참가해보면 미경산 한우가 항상 화두에 오르곤 하잖아요. 우리농장은 우선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 7~8두에 대해 시범적으로 비육을 시작했어요. 현 상황에서는 수태율이 낮거나 체급이 떨어지는 암송아지를 따로 분리해 비육우로 조기 선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요."

또한 민용 씨는 '암소 개량'에 오랜 세월 공을 들인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 자가인공수정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우량 암소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공수정사를 통해 수정작업을 진행할 경우, 비용부담도 부담이지만 그보다는 원하는 수준의 개량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젊은 만큼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자신감도 넘치는 민용 씨. 박 대표가 30년 넘게 천지농장을 이끌어 왔듯이 30년 후에는 민용 씨가 어떤 모습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을지 기대해본다.

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사육전망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예상

'15.12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75만 마리)보다 3.8% 감소한 266만 마리 전망

3월 마릿수 전년(266만 마리)보다 3.0% 감소한 258만 마리 전망

공급전망

1~2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사육 마릿수 감소로 1~2월 도축은 전년보다 12~15% 감소 전망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전년보다 6~10% 증가 전망

가격전망

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23~37% 상승한 17,000~19,000원/kg(지육) 전망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단위 : 원/지육kg (만원/600kg)

구 분	12월	내년 1월	2월
2015년	17,440 (627)	17,000 ~19,000원 (609~681)	1월 대비 약보합세
2014년	13,994 (503)	13,845 (498)	14,139 (508)
평 년	13,856 (496)	14,660 (527)	13,771 (495)

■ 한우 소비자 가격 급등시 수요 감소 ⇒ 대체수요 증가

■ 국내산 가격 강세로 2016년 수입육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한육우(12.28)' 인용]

12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 분			평년 ('10~'14)	2014년		2015년		대비(%)	
				11月(A)	12月(B)	11月(C)	12月(D)	C/A	D/B
도축두수(두)			827,324	63,613	66,126	55,805	60,469	△12.3	△8.6
경매두수(두)			379,185	34,256	37,215	30,168	34,584	△11.9	△7.1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4,354	14,208	18,198	17,667	26.8	24.3
	거세우		14,569	14,810	14,478	18,609	18,267	25.7	26.2
	비거세우		10,624	11,653	11,731	15,281	15,569	31.1	32.7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3,910	4,519	4,592	5,857	5,693	29.6	24.0
	송아지	암	1,511	1,856	1,723	2,563	2,519	38.1	46.2
		수	2,045	2,462	2,247	3,119	3,107	26.7	38.3
불고기(1등급/kg)			32,690	35,410	35,593	41,480	41,785	17.1	17.4
등심(1등급/kg)			61,957	67,710	66,776	77,510	77,314	14.5	15.8

* 12월 24일까지 기준임.
* 전국경락기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12월 한우농가 소득 추정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20,716	7,445	4,728	2,717
1+	18,920	6,800		2,072
1	17,309	6,221		1,493
2	15,957	5,735		1,007
3	14,122	5,075		347

* 12월 24일까지 기준임.
* 경영비 : 2014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728천원/600kg,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해당 기간 조회 기준임]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 「한우키우기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 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우농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동안 한우자조금소식지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가분들께 더 유익한 소식지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을 통해 현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소식지에서 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등 의견을 보내주시면 2016년 소식지 제작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우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전국의 한우농가 □ 일정 : 2016년 1월 4일(월)~22일(금)

□ 방식 : 우편물 및 인터넷(hanwooboard.or.kr) □ 결과 발표 : 2016년 2월호 소식지

○ **받는 곳**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서초동, 케피이회관 2층) · 전화번호 : (02)522-3608, 523-3608

절취선

- 아 래 -

□ 질문내용

1- 한우자조금소식지를 구독하고 계시나요?

① 매번 본다 ② 가끔 본다 ③ 보통 ④ 잘 보지 않는다 ⑤ 아예 안본다

2- 한우자조금소식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기존 소식지 내용 중 가장 흥미 있게 본 코너는?

① 포커스 ② 자조금소식 ③ 한우협회소식 ④ 우리한우판매점 ⑤ 한우바르게 알기 ⑥ 농장탐방 ⑦ 기타

4- (주관식) 앞으로 한우자조금소식지에서 보고 싶은 내용은?

한우자조금소식지에서 더 다뤄주길 바라는 분야는?

※ 설문지를 작성한 뒤 절취선을 따라 오린 뒤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독자 설문조사

좌측(22페이지)의 설문조사 답안에 표기해 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추첨을 통해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문제 ① ② ③ ④ ⑤
2–문제 ① ② ③ ④ ⑤
3–문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문제 (

)

※12월호 정답
한우의 날 글씨 / 계단색깔

※ 애독자퀴즈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내
애독자퀴즈 코너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주소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호 퀴즈 당첨자 (휴대폰번호 뒷번호 네자리)

김부성 1317	문민선 5076	최애영 6647
김경임 8229	김도휘 0830	이현아 9203

한우자조금 소식지 비매품

2016년 1월호 통권 제123호

발행일 2016년 1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우 06641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 (주)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02-2269-5029) **인쇄** (주)삼진P&C(02-2271-0860)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제7회 문화공모전 당선작

謹賀新年

2016년 丙申年 새해에는
'명품 한우'가 세계로 진출합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